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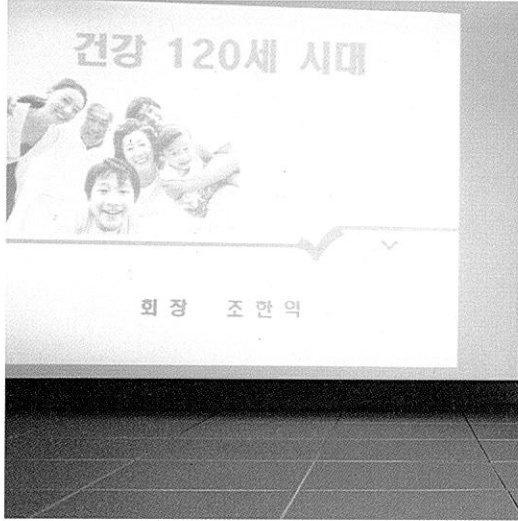
2012 직원 전체 연수교육 현장 속으로

한국건강관리협회는 전국 1,000여 명의 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여수 디오션리조트에서 9월 10일부터 15일까지 2012년도 직원 전체 연수를 가졌다. 불과 며칠 전 우리나라에 큰 피해를 주고 간 태풍 '볼라벤'과 '덴빈'을 겪은 뒤라 이들의 만남은 서로간의 안부와 안도감으로 더욱 반가움에 가득 차 있었다.

바다의 도시 여수에서 전 직원의 만남 가져

한국건강관리협회는 매년 1회 건협 직원으로서의 소속감 제고 및 사기 진작과 업무에 관한 지식 함양, 정보 공유 등을 위해 전 직원이 참여하는 '직원 전체 연수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4대 미항 중 하나로 알려진 바다의 도시 여수에서 직원 전체 연수교육을 개최했다.

조한익 건협 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배용태 전남행정부지사, 정병재 여수시 부시장의 축사가 이어졌으며, 특히 이날에는 조한익 회장의 "건강 120세 시대"라는 주제의 특강이 진행되었다. 조한익 회장은 건강지킴이로서 건협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 올바른 건강생활 실천을 통한 질병 예방과 함께 정기검진으로 질병위험군을 발견하고 건강 증진으로 위험인자를 제거하여 최상의 건강 상태를 유지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한편 저녁시간에는 여수시립국악단 등 현지 공연팀의 공연을 관람하는 등 직원들의 단합을 위한 건협인의 밤 행사가 치러졌다.

한국건강관리협회 캐릭터 “체크보이” 선포

이번 연수에서는 건협을 대표하는 캐릭터 ‘체크보이’의 선포식을 가졌다. 체크보이는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앞장 서는 한국건강관리협회와 2,000여 명의 건협 전 직원을 대표하는 캐릭터다. 임재호 홍보교육본부장은 선포를 통해 전 직원의 투표로 선정된 체크보이는 우리 모두의 마음을 담아 고객의 눈높이에서 고객과 함께하는 친절도우미로, 건강 증진을 유도하는 건강지킴이로 그리고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사랑나눔이로 그 역할을 충실히 하게 될 것이며, 전국 검진센터에서는 물론 홍보물 등에 활용되어 한국건강관리협회를 국민들에게 더 친근하고 가깝게 다가가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랑의 청정 해수욕장 가꾸기

한국건강관리협회는 2010년도부터 건협 직원 모두가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눔에 대한 행복의 소중함을 느끼도록 함은 물론 지역의 나눔 문화를 활성화시키고, 또한 직원들의 단결과 협심력까지 강화시키기 위해 연수 프로그램에 전 직원이 함께하는 사회공헌활동 ‘건강마을’ 가꾸기를 전개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지난달까지 진행되었던 ‘2012여수 세계 박람회’로 820만 명의 많은 인파가 몰렸던 관내 방죽포 등 7개 해수욕장 및 지역 환경정화를 실시하였는데, 많은 인파 외에도 연이은 태풍 강타로 해변가는 쓰레기와 각종 부유물들로 어지럽혀져 있었다. 전국에서 모인 직원들은 7개조로 나뉘어 각각 맡은 해수욕장에서 환경정화활동을 펼쳤으며, 모두가 살아있는 바다, 숨 쉬는 연안이라는 여수의 모토에 걸맞게 깨끗하고 생명력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조한익 회장은 “전 지부 직원이 참여하는 사회공헌활동은 직원 간의 소통과 화합을 이루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들에게 도움을 주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며, “우리 직원들이 봉사활동을 통해서 더 많은 것을 얻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국건강관리협회의 2012 직원 전체 연수는 1차와 2차로 나뉘어 2박 3일로 이루어졌으며, 마지막 날에는 남서중 사무총장의 특강 속 최근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싸이의 ‘강남스타일’을 함께 노래하며 서로간 헤어짐의 아쉬움을 달래고 내년을 기약했다.